

버려지는 자전거 새 생명 찾기

- 자원재활용으로 생태교통이용활성화

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방치된 자전거가 달리면 일석삼조!

녹색교통의 대명사이자 건강한 삶의 동반자인 자전거는 보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건강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길거리나 주차장 구석 후미진 곳에 녹이 슨 채로 버려진 자전거라면? 햇살을 가르며 달려야 할 자전거들이 버려지고 방치되면서 자원은 낭비되고 도시의 흉물이 되고 있다. 방치된 자전거 대개는 부품 몇 개를 갈거나 색을 칠하면 멀쩡하게 썩썩 달리 수 있는 것들이라 더 마음이 아프다.

푸른거제21시민위원회가 녹슬며 방치된 폐자전거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도시에 우리들의 삶에 신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버려지는 자전거 새 생명 찾기'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0년 말부터이다.

폐자전거 재생사업은 친환경 녹색교통인 자전거이용을 권

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주 소 53256 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 1849
거제시공공청사 504호

전 화 055-637-4421

팩 스 055-637-9452

이메일 heey6304@hanmail.net



장하여 도심교통 혼잡과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며, 자원재활용으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하면서 시민 건강도 증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 오는 사업이다.

왜 자전거인가?

거제시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소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고, 더불어 양대 조선소의 수많은 협력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일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60% 정도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다. 자전거가 녹색교통으로 이미 자리잡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도 뒤따른다. 많은 협력사들이나 조선소 근로자들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이들의 교통수단이었던 자전거가 또 그만큼 자주 교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방치되거나 버려진 자전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새로 취업한 사람들의 자전거 구매도 많아 자전거 사용 사이클이 짧기도 하고 매우 빈번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자전거 재활용 사업



기업체 자원 재활용 및 녹색 도시 건설 위해 '에코 자전거센터' 지원

은 지역의 특성에 딱 맞는 현안이기도 하고, 그 의의와 기대효과에서 에코시티로 나아가는 주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폐자전거 재생사업은 거제의 최적화된 자원재활용사업이자, 녹색교통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인 것이다.

사업내용

거제에코자전거센터 운영

재생산 자전거 생산과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에코자전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늘푸른 거제21은 거제시 상동에 300평 규모의 적치장을 확보하고 수리 후 재생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거제시에서도 현재 2명인 작업 인력을 5명으로 확대하고, 작업장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책임지고 있다.

방치자전거 수거

거제시의 각 동과 면지역의 도로에 방치된 자전거를 공공근로 형식으로 수거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체에 방치된 폐자전거와 각 아파트에 폐자전거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자전거 무상 순회정비, 수리업무

폐자전거를 정비, 수리하여 재생자전거로 제작하고 있다. 부품을 교환하고 도색 등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다.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돌며 무상으로 자전거 수리를 해주는 무료 순회정비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에코자전거 무료대여 및 기부

재생산된 에코자전거들은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되거나 기부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 늘푸른거제21, 삼성중공업은 삼자 협력Mou를 체결하여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늘푸른거제21이 정비수리 완료한 재생자전거 150대를 삼성중공업에 전달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재료비 등 운영비 3천만 원을 후원하고 사내 폐자전거를 센터에 공급하였다. 또한 자전거 봉사팀을 창단해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 등을 실시하며 자전거타기 캠페인(자전거대행진)을 전개하고 있다.



자전거 출퇴근 홍보 및 자원재활용 이용 활성화

관공서 및 기업체 자전거 출퇴근 홍보 및 시민 생태교통 이용 권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등을 위해 연계사업으로 '거제시 도심속 자전거대행진'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 새 생명 찾기 사업을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의 자문, 거제시환경위생과의 보조금 지원과 행정업무 지원,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사무국의 행정업무지원, 수거, 재생, 판매관리업무 책임, 에코자전거 센터 팀장의 총괄책임 등의 역할분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등 기업들과 성공적인 파트너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자전거수거, 수리정비, 판매

평가와 과제

이 사업은 2011년부터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500여대의 폐자전거를 수거해 이 중 절반 정도인 3,710대를 새 자전거로 재탄생시켜 시민들에게 되팔아 경제적 가치 창출, 이용자의 경제적 효율성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무료순회정비로 600여대의 폐자전거가 새롭게 부활하여 재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자원재활용으로 창출해낸 매출은 1억7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연간 400대 판매에 1,600만원의 매출에 불과했으나 5년째 이 사업을 이어오면서 주민들 사이에도 입소문이 나 2014년도에는 1,084대를 수리·판매해 5,13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민들의 이용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15년도에는 7월말까지 850대를 판매, 4,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매달 평균 120여대를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생 보급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에코자전거센터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처음에는 상시근로 2명, 공공근로 2명으로 시작했으나 지금은 상시근로 3명, 파트타임 2명, 공공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 뿐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면단위 지역에 매년 에코자전거 단계적 기증으로 생태교통 수단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재활용사업의 미래지향적 모델

버려진 폐자전거를 수리해 새 자전거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기부하는 사업은 단순한 자원재활용 차원을 뛰어 넘는다. 자원재활용으로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하며, 친환경 생태교통수단인 활성화를 위한 핵심 출발점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대형조선소와 많은 협력사 직원들의 출퇴근 자전거 이용으로 자전거 구매율이 그만큼 높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 재활용사업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용자의 경제적 효율성, 화석에너지의 사용절감과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베이스 역할을 담당하며, 특히 생태교통수단인 경제적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전국에서 자전거재활용 사업이 5년 이상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곳은 거제시가 유일하며, 타 지역으로 이직한 근로자들의 구입문의가 쇄도하며,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만큼 호응과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재활용의 미래 지향적 모델이며 지역의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다.

